

AI이미지 시대의 예술...본질을 묻고, 답하다

30일까지 조선대미술관 장미주간 특별기획전 'AI 시대, 예술은 무엇으로 사는가'

회화·사진·영상·설치 등 총 30여점 선포 지역 작가 8인...4가지 질문 대한 답 제시

AI 이미지 시대, 예술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나눠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조선대미술관은 2024 장미주간과 연계해 오는 30일까지 특별기획전 'AI 시대, 예술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AI 생성 이미지에 관심 있는 작가 8명을 선정해 AI 이미지 시대 예술의 가치 및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리다.

AI 생성형 프로그램을 활용한 회화·사진·영상·설치부터 인간의 수행이 담긴 작품까지 총 3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총 4개 질문에 대한 답이다. AI 이미지가 작품 창작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로 인한 본인 작품에 대한 가치는 어떤지, AI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관람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다룬다.

강운·김형숙·박상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신작을 선보인다.

구름 작가로 불리는 강운은 '공기와 꿈' 연작을 세 가지 형태로 보여준다. 인간 노동으로 만들어내는 추상 예술, AI 생성형 창작 도구를 활용해 구름 형상을 수증기 입자 단위 픽셀로 해석한 작품, 챗GPT 프로그램 DALL-E로 생성한 이미지다. 작가는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를 새로운 문화기술과 접목해 호기심,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김형숙 작가는 주변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미지를 픽셀화해 해체하는 영상작업을 펼쳐낸다. 해체된 픽셀은



강운작 '공기와 꿈'

또다른 형태로 조합해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된다. 우리가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영상 속 이미지는 작은 픽셀로 이뤄져 있으며, 픽셀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그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질문한다.

박상화 작가는 AI를 통해 기후위기 이후 미래 광주의 풍경을 담아낸 '미래 도시-광주'를 선보인다.

작가는 옛 전남도청과 그 주변 모습을 그려내도록 했다. 인간 자의식에서 기반한 행위로 초래된 기후위기, 전쟁, 인류 멸망을 비롯해 AI가 또다른 위협은 아닐지, 또 AI 개입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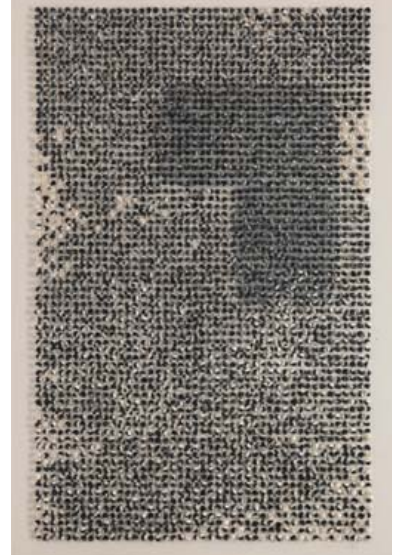
수많은 작은 집을 그려나가는 고차분 작가는 캔버스에 거칠게 지어진 집의 형상을 잘라내고 칼로 도려내는 행위를 반복한다. 이는 마치 인간이 태어나 죽음을 향해



고차분작 '우리들'



신호윤작 'There is no essence - pensive bodhisattva'



정광희작 '자성의 길 14'

달려가는 삶 속 수많은 인고의 시간들과도 같다. 이러한 모습들은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며 AI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진정성을 자아낸다.

문선희 작가는 고공농성이 벌어졌던 산업구조물을 상상적 풍경 위로 옮겨온 작업 '거기 뭐 하세요' 시리즈 총 11점을 전시한다. 작가는 고공농성이 있던 100여 곳 현장을 찾아다니며 사진으로 기록했다. 이는 AI가 활용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로, 작가의 유일한 기록물이기도 하다. 그는 작품을 통해 소수의 목소리,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 그들의 외로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도원 작가는 최근 한국 전설 등에 관심을 갖고 AI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번 출품작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심정전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다. 작품의 배경은 AI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 그려냈다. 무한한 예술의 세계와 시각적 탐험 그리고 삶의 휴식이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정광희 작가는 붓끝에 모든 감정을 집중해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다. 그의 서예 작품에는 늘 깨어 있기 위한 자연스러운 수행 과정이 담겨있다. 작가는 AI의 반대 지점에서 아날로그적 사고로 천천히 자신을 들여다본다.

신호윤 작가는 '본질은 없다' 연작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해 사유한다. 관객에게 내재된 이미지와 현실의 작품 이미지 간 충돌 속에서 인간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질문한다. 이러한 내용은 AI가 생산해낼 수 없는 창조적 영역임을 보여준다.

장민한 조선대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AI의 출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려는 작가들의 다양한 생각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AI가 예술 또는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희로애락'...마음의 표정을 그린다

'심상작가' 김유흥 개인전, 21일까지 호심미술관

마음의 표정을 그리는 심상 작가 김유흥이 오는 21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펼친다.

김 작가의 내면세계는 사의(寫意)로 가득하다. 그는 동양의 사의적 시각으로 바라본 인간 마음의 표정을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10여 년 전부터 3호 개별 만상(萬像) 작업을 시작했다.

매일 도를 닦듯 돈오와 점수를 넘나들며 무아의 경지로 다양한 표정을 그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157점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마음 속 다양한 감정과 표정을 추상적 이미지로 그렸다. 일단 시작된 선은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다가 시작된 부분과 맞닿을 때 종료된다. 다양한 상상력과 해석으로 천태만상의 표정을 일필로 완성했다"고 밝혔다.

최준호 호심미술관장은 "그의 작품은 춤을 추듯, 웃듯, 연기처럼 사라지듯,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듯, 혼자 턱을 괴고 사유하듯 한다"며 "심상 표정 작업을 통해 세상의 이치와 인간 삶의



'심상표정'

희로애락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바람처럼 빛나는 푸르름

정소영 작가 초대전, 내달 18일까지 대담미술관

반복적인 패턴과 호흡하는 생명력, 볼륨 있는 형태와 반짝거리는 터치. 미묘한 나뭇잎의 움직임이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대나무와 메타세콰이어의 푸르름 풍광을 선사하는 대담미술관이 다음 달 18일까지 정소영 작가 초대전 '바람처럼 빛나는 푸르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시간을 축적한 섬세한 작업을 펼쳐 보인다. 전남대 예술대를 졸업한 이후 영국 런던 UAI 첼시 파인아트 석사를 졸업한 그는

섬세하고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나뭇잎' 회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나뭇잎'은 작품에서 꾸준히 드러나는 요소이자 평생에 걸쳐 해결하고자 한 화두이기도 하다.

작가의 작업은 어린 시절 집 앞 커다란 은행나무에 올라 따사로운 햇살이 전해주는 생명력을 온전히 받아들인 나뭇잎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는 내면 깊은 곳의 개인적 이야기를 화폭에 담아내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감정의 나뭇잎들을 선보



'Blue shining like the wind'

인다. /최명진 기자

건강과 행복! 우리 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굿모닝서울안과
GOOD MORNING SEOUL EYE CENTER

노안/백내장
라식/라섹
안검하수/쌍꺼풀
눈물길수술

2층 수술센터 / 3층 외래진료센터
- 안구건조증 클리닉 운영

광주 서구 무진대로 965
태영내과21빌딩·메디컬센터 2, 3층
☎ 062.430.2020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에덴병원

진료내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전화 : 062-260-3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70번길 10 (두암동)

공공의료·복지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보훈공단
광주보훈병원**

병원장 이삼용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대표전화 062.602-6114
응급실 062.602-6119

www.ct119.co.kr

믿음을 주는 참 좋은 병원
광주씨티병원
시티재활의학과요양병원

광주씨티병원 062.460-7000
응급실 062.460-7119